

I . 연 혁 History

영암군은 지석묘군이 도처에 분포하고 타제석기, 패총 등이 다수 발굴되는 것으로 보아 청동기시대부터 많은 사람들이 집단으로 거주하였던 지역으로 추정되며, 영암만과 도포만, 남해만 주변의 전설과 유적(遺蹟) 등으로 미루어 인근 지역과의 교류도 활발했던 곳으로 짐작된다.

고대국가 성립기에는 마한 54국 중 최후 중심권이라 할 수 있는 월지국에 속했던 것으로 추정되며, 왕인박사가 일본 응신천황의 초청으로 도일한 시기에는 고구려, 백제, 신라 삼국 중 백제의 월나군(月奈郡)에 속하였다.

통일신라 때부터 영암군이라는 명칭이 최초로 등장하는데, 고려 성종(高麗成宗) 14년(995)에 낭주(朗州)로 개칭되었다가 고려 현종(顯宗) 9년(1018)에 다시 영암으로 불리게 되었다. 당시에는 현 강진군인 도강현(道康縣)과 죽산현(竹山縣), 그리고 해남군인 화원현(河源縣)이 모두 영암에 속하였고 금정면, 시종면도 나주에 속해 있다가 고종 28년(1891)에 영암으로 편입되었다.

영암군이 11개 읍면의 체제를 갖추게 된 것은 1944년 일제의 조선 읍면폐합령에 의해서이며,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후인 1961년 10월 1일 「지방자치에 관한 임시조치법」에 따라 영암군이라는 지명을 종전대로 유지한 지방자치단체의 성격을 갖추게 되었다.

1979년 4월 7일 영암면이 영암읍으로 승격되고 2003년 5월 1일에는 삼호면이 삼호읍으로 승격됨으로써 영암군은 오늘날 2읍 9면을 갖춘 선진 지방자치단체로 힘차게 성장해 나가고 있다.